

퀘이사 월간지_06월호
포스트 코로나 시대_전략편_KODEX레버리지 포지션 유지

작성자: 땡기왕자

♣♣♣2020년06월호

=>중장기적으로 지수 예측이 되어야만 주도섹터, 주도주, 대장주를 발굴 할 수 있고,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강세장의 지수 고점이 나올때가 바로 주도주의 매도 시기입니다.

=>만약 지금 약세장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삼성SDI, LG화학, 에코프로비엠, NAVER, 카카오 모두 고점입니다. 다 팔아야 됩니다. 주도주가 고점이 나왔다면 관련 섹터 종목들도 다 팔아야 됩니다.

=>그만큼 시황 판단이 중요합니다. 만약 지금 약세장이 아니라 강세장이라고 판단을 했다면... 이 종목들 주가 고점이 아닙니다. 주가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더 갑니다. 왜냐?

=>이쪽 섹터 주도주들이 지수를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2005년~2007년 강세장은 POSCO...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두산중공업...GS건설... 등이 지수를 이끌고 나갔습니다.

=>2009년~2011년 강세장은 현대차...기아차...LG화학...SK이노베이션...S-OIL...금호석유... 등이 지수를 이끌고 나갔습니다.

=>2016년~2017년 강세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수를 이끌고 나갔습니다.

=>2020년3월24일~2022년 강세장은? 삼성SDI...LG화학(2009년 당시에는 화학으로... 이번엔 전기차로...)... NAVER...카카오...엔씨소프트... 뭐 이런 것들이 지수를 이끌고 나가야 됩니다. 큰 흐름이 이해가 되시죠?

=>강세장이라고 주식이 매일 오르지 않습니다. 강세장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강세장에는 강세장 전략을 가져가야만 됩니다.

=>텔레그램 채널에서는 주로 시장, 시황, 지수에 관한 설명을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3월24일 이후부터 대세 저점이 나왔다고 그랬죠?

=>대세 저점이 나왔다는 것은 약세장이 끝났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대세 고점까지 상승 추세를 의미합니다.

=>상승 추세라고 지수가 매일 오르지 않습니다. 추세가 상승이라는 의미입니다.

=>대부분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3월24일 이후에도 지수가 조금 흔들리면 조심해야 된다, 현금 확보해야 된다, 쌓바닥이 아직 안 나왔다 등의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3월24일 이후, 한 번도 그런 소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상승추세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지수 예측이 쉬워보여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주가가 가긴 가는데... 굼벵이처럼 올라갑니다. 그래도 당연히 은행 예/적금보단 나을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분기마다 배당도 주고...

=>전 세계는 지금 코로나 전쟁 뿐만 아니라 반도체 전쟁 중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TSMC 등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들의 실적은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IT반도체 등 기술주가 3월24일 이후(유동성 장세) 처음으로 반등에 성공한 섹터입니다. 순환매 마지막으로 올라간 섹터는 주도 섹터가 아닙니다.

=>IT반도체는 3월24일 이후 5월 초중순까지 상승랠리를 이어갔고, 5월 중순부터는 바이오, 제약 등 다른 섹터들이 바톤을 이어받았고, 순환매 마지막에는 과거 굴뚝주, 경기관련주, 우선주 등이 상승을 하였습니다.

=>IT반도체가 5월 초중순~6월 중순까지 쉬었는데, 이제 다시 상승할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매수/추가매수를 고려중이라면 반도체 섹터를 1순위로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순환매 형식으로 올라가는게 아니라 실적 장세의 대장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실적이 아니라 미래 실적입니다.

=>비트컴퓨터도 순환매 1등으로 올라갔다가 지금 4주인가, 5주를 쉬었는데 다시 상승할 순서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텔라닥입니다.

=>주식투자는 미래를 예측하는 사업입니다. 점쟁이 사업과 같습니다. 미래 예측이 안 되는 사람이 무슨 대응을 합니까?

=>지수 예측이 안 되면 주도 섹터를 볼 수가 없고, 지수 저점과 고점이 예측되지 않으면 주도주, 대장주를 언제 매수해서 언제까지 들고가야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 사업부를 거느린 기업이 모든 사업부가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포트폴리오 경영을 하는 투자자도 포트에 있는 모든 종목들이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중에 일부만 성공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실패한 사업, 투자는 반드시 생기게 되는데, 그런 것은 쿨하게 털고, 또 새로운 사업, 새로운 종목으로 옮기면 됩니다.

=>사업가는 알겠지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확신에 차서...모든 것을 알아서 사업을 시작하는게 아닙니다.

=>사업은 미래에 대한 영역인데... 사업 초기에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투자도 마찬가지로...

=>모든게 완벽해 보이는 사업은... 이미 시장이 성숙되고...경쟁자가 많아지고...그렇습니다.

=>종목도 보면... 모든게 완벽해보이는데... 드럽게 주가가 안 오르는 기업들이 있죠? 그게 함정에 빠진 겁니다.

=>투자자는 항상 미래를 생각해야 됩니다. 작년에 전기차, 2차전지에 투자할 수 있었던 것은 미래를 생각했기 때문이지, 지금 당장 밖에 전기차가 돌아다니기 때문에 투자한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상상력입니다.

=>사업, 투자에 100%는 없습니다. 그래서 몰빵이 아니라 분산해서 포트폴리오 경영을 하는 것이고, 확률적으로 좋아질 것이란 판단... 그곳에 사업가, 투자자들은 과감한 결단을 합니다.

=>“이번에 2차전지 놓쳤어요.” 상관없습니다. 주식시장에 2차전지 섹터같은 것들이 또 안 나올까요? 또 나오게 됩니다.

=>주식은 사업인데, 새로운 종목, 새로운 트렌드가 나오면 자본이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종목들을 매도해서 가야 됩니다.

=>그때는 이미 100%수익권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아직 목표가에는

도달하지 않았지만 비중을 절반 매도해서 가는 방법도 있고, 수익률이 가장 떨어지는 종목을 털어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포트폴리오 경영입니다. 사업도 잘 되는 쪽, 잘 되는 방향으로 계속 이동하고, 경영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는 결단을 내려야만 새로운 트렌드, 새로운 종목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 늘 포트폴리오가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직장인이야... 존버하면 월급이 나오지만.... 사업에서 트렌드에 뒤처지거나...유행에 뒤처지거나...그러면 끝장입니다.

=>새로운 종목이 나오면 기존 종목 중에 가장 지지부진한 것을 절반 매도해서 이동하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이게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이 그렇기 때문에 잘 되는데, 직장인들은 은행 마인드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됩니다.

=>주식투자의 길은 2가지가 있습니다. 투자의 길이 있고, 트레이더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투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투자는 기다림의 연속이고, 투자자의 인내심을 시험합니다. 맞죠?

=>어느 분야든 쉬운 분야가 없고 마찬가지로 그 고통과 공포를 이겨내고 인내심, 기다림을 가지고 얻는 쾌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희열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자산을 일군 분들 중에서도 돈을 벌겠다는 생각보다도 그 희열을 계속 느끼려고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주식투자의 과정이 그렇다는 것을 모르고 즐거움과 행복만 있을 것이라고 들어오는 투자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눈먼 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중도 포기를 하고 떠납니다. 그 고비를 못 넘깁니다. 그리고 시장이 불타오르면 또 옵니다. 그렇게 쾌락만 추구하다 항상 주식시장에서 주변인으로만 머물게 됩니다.

=>투자는 또한 사업이고 장사입니다. 그래서 수능(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마음가짐과도 같습니다. 메카니즘이 거의 똑같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장사를 하다 보면 비용이 발생합니다. 투자에서

손실은 바로 그 비용에 해당합니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고
장사하겠다는 마인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종목 교체가 안
됩니다.

=>기업들도 안 되는 사업은 계속 정리하려고 그러고, 잘 되는 사업은
계속 키우고, 새로운 산업으로 계속 진출하려고 하잖아요?

=>같은 삼성전자라는 기업이라도, 30년 전에 삼성전자가 했던 사업과
지금 삼성전자가 하는 사업이 다른 것처럼... 당연히 투자자도 30년
전의 포트폴리오와 30년 후의 포트폴리오는 달라야 정상입니다. 과거
고도성장기 같은 경우에는 30년 전에 보유했던 종목들을 계속 가지고
있더라도 큰 수익으로 돌아올텐데, 지금과 같은 기업환경이 격변하고
저성장이 고착화된 경우에는 다릅니다. 지금, 같은 기업을 30년동안
보유했을 경우에는, 30년 후에 그 기업이 사라져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투자를 성공으로 연결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중에 일부만
성공해도 자산 증식을 일구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대다수가
그 힘든 과정을 못 넘어갑니다.

=>과감한 결단력과 실행력, 미래를 바라보는 통찰력, 오투기처럼
일어나는 근성, 경영과 관리 등이 필요한 것들이 주식투자과 많이
닮아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경영>은 그 시대가 원하는, 시장이 원하는, 돈(세력)이
원하는,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쪽으로 항상 포트를 신선하게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기 '투기'자가 아니라, 장기 '투자'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지수의 흐름과 주도 섹터의 방향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또 실시간으로 VIEW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